



2026

우체국 문화전

접수번호

기입 금지

제34회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초등고학년(4~6학년)

제 목

마음이 담긴 편지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를 읽고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은 편지가 시간과 거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이어 준다는 점이었다. 휴대전화로는 몇 초 만에 연락할 수 있는 시대지만, 손으로 꼭꼭 눌러 쓴 편지에는 다른 어떤 말보다 깊은 진심이 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덮고 나니 우체국은 단순히 편지와 소포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 생각을 하던 중 오래된 우체국 창고에 관한 상상을 해보았다. 창고 한 쪽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들이 조용히 보관되어 있었다. 주소가 지워지거나 받는 사람을 찾지 못해 배달되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하지만 우체국 사람들은 그 편지들을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꼭 주인을 만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낡은 상자 속에서 아주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누렇게 변한 봉투에는 여러 번 배달을 시도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직원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주소를 확인하고, 바뀐 지명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주소문



한 끝에 마침내 편지의 주인을 찾게 되었다.

편지를 받은 할머니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오래 전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남긴 글이 나타났다. 편지에는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친구가 자신을 잊은 줄 알고 살아왔지만, 편지를 읽는 순간 친구도 끝까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편지는 수십 년이나 늦게 도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조금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견디고 도착했기에 더 큰 감동을 전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본 직원은 우체국이 배달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도 편지가 만들어 내는 따뜻한 기적을 보여 준다. 책을 읽으며 나 역시 편지에는 시간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전하고, 오래된 기억을 다시 이어 주며,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감정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편지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오래 간직하기는 어렵다. 반면 손편지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 읽을 수 있고, 글씨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남아 있다. 그래서 편지는 오래될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우체국은 오늘도 수많은 편지와 소포를 배달한다. 그 속에는 사랑, 감사, 응원, 사과, 그리움 같은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다. 앞으로도 우체국이 사람들의 진심을 이어 주는 다리가 되어,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따뜻한 편지 한 통을 써 보고 싶다.